

연합감리교회 학생주일

헌금 전 이야기

오 늘 우리는 연합감리교회 학생주일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학생주일은 교단 전체가 함께 지키는 6개의 특별선교주일의 하나로, 청년들의 삶을 기뻐하고 그들에게 재정적 및 영적 디딤돌을 제공합니다.



학생주일 장학금 수혜자인 벤 론은 연합감리교회와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목회자의 자녀인 그는 자라면서 여러 연합감리교회에 다녔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는 것은

매번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돌봐주고 그의 성공을 바랐던 교회 사람들의 보살핌을 통해 커다란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의 교회는 그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자원을 찾는 일을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 자원 중 하나는 총회 고등교육사역부의 장학금이었습니다.

벤은 연합감리교회가 자신과 더 큰 지역사회를 위해 했던 선한 일을 체험했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 교단의 젊은이들이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합감리교회 학생주일 헌금은 희망을 세우고, 미래에 힘을 실어주며,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쓰입니다. 관대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헌금 기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소망과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 연합감리교회 학생주일을 통해 격려를 얻는 학생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 또 그들 앞에 있는 밝은 미래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의 여정을 통해 저들의 믿음과 인내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의 예물 위에 복 내리셔서 저들의 삶과 세상에 복을 끼치는 교육의 기회들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 사진: 벤 론

